

서울과 나고야 노인의 생애사와 가족 변화: 근대가족의 탄생과 종언의 생애사적 자취*

박경숙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이 연구는 19세기 후반 이후 급변하는 근대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한국과 일본에서 근대가족이 어떻게 구성되고 변화되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재 서울과 나고야에 거주하는 1920년대에서 1940년대에 태어난 노인의 유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걸쳐 가족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고찰했다. 가족관계는 가계, 가산, 기업의 계승과 상속, 부부관계, 자녀부양과 노부모부양, 가족의식 등의 복합적인 차원을 포함하므로 각 차원에서 어떤 특징과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고찰했다. 분석결과 두 사회 노인의 생애 전체를 통해 직계·부계가족과 부부가족의 절충 양상이 확인되었다. 성 역할분업,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노인부양에 대한 태도는 생애와 시대에 따라 달랐지만 가족관계의 변화는 직계·부계가족과 부부가족의 절충 논리 속에서 이루어졌다. 직계·부계가족과 부부가족의 절충은 두 사회의 가부장적이고 발전중심적인 정치·경제적 조건과 연결되어 젠더와 세대 관계의 독특한 타협과 각축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직계·부계가족과 부부가족의 절충과 혼용으로 구성된 가부장적 근대가족의 내적인 균열에서 탈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했다.

주제어 근대가족, 가부장적 가족, 성 역할분업, 노인 생애사

I. 머리말

1920년대에서 1940년대에 태어나 현재 고희(古稀)를 훌쩍 넘긴 한국과 일본의 노인은 거시적인 시대 변화를 압축적으로 경험했다. 한국 노인의 생애는 봉건 통치질서가 와해되고 일제의 동화와 차별적인 지배에 있던 정치·경제적 격변기에 시작되었다. 일본 노인의 생애는 메이지유신을 통해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서양제국의 문물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제국주의 근대화를 추진하던 시

* 이 글은 2016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A2925399). 세심하고 유익한 의견을 제안해주신 익명의 심사자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에 출발했다. 탈제국주의와 냉전체제가 굳어진 20세기 중반 이후 한국과 일본 사회가 권위주의적 국가중심 정치체제에서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어나갔을 때 그들은 경제현장과 가족에서 근대의 질서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에 이르러 경제, 사회, 문화의 경계가 넓어지고 변형되는 시기에 그들은 노년을 살아가고 있다.

노인의 생애사는 근대적 제도, 통치권력, 이념에 영향을 받았고 또 역으로 그들의 삶의 전략은 근대적 제도와 관념과 통치방식을 구성했다. 태어나고 성장하고 노년에 이르는 동안 다양한 생존 전략을 개발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근대와 관련된 다양한 경계가 형성되고, 변형되고, 다시 구성되었다. 이렇게 압축적으로 근대화 과정과 탈근대화를 체험한 노인의 생애사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근대적 사회 특성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자 방법이다. 문헌과 공식적인 기록이 지배 권력의 역사관에 바탕하고 있다면 보통 사람들의 삶의 경험과 인식은 시대 변화에 훨씬 폭넓은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노인의 생애사에 배태된 한국과 일본의 근대가족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근대가족이라는 조합어는 근대의 형상과 가족의 형상 사이의 밀접한 상호관계를 함축한다. 근대는 한편으로 보편적이고 수렴적인 인류 발전의 한 단계이자 시대적 특성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각 지역의 구체적인 정치·경제적 구조와 사회관계에서 다양한 형상으로 구성되었다. 서구사회가 경험한 근대화 과정을 보편적인 발전 과정이라 생각하고 그에 동화하는 길을 택했던 한국과 일본 사회에서도 근대에 대한 독특한 번역 과정을 통해 근대적 제도와 관념이 형성되었다. 그 결과 보편적인 변화로 간주되었던 근대의 특성들은 사실은 지역마다 다르고 토착적인 문화와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복잡한 형상들로 만들어졌다. 근대적 사회구성의 미시적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가족구조 역시 독특한 근대적 정치경제 조건 속에서 구성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근대가족의 특성과 그에 녹아 있는 사회구조의 정치경제적 특성과 집합적인 의식을 추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한국과 일본 근대가족의 특성으로 직계·부계가족과 부부가족의 이념과 원리가 절충된 특성을 조명한다. 다음은 경험적 자료를 통해 1920년대에서 1940년대에 태어난 노인들의 생애사에서 지속되고 변형된 근대가족관계의 특성과 그 안에 배태된 한국과 일본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적 특성

과 변화를 조망한다.

II. 한국과 일본의 근대가족의 독특성: 가부장제의 논리로 혼용된 직계·부부가족

근대적 가족관계는 복잡한 이미지들로 표현된다. 가내영역과 공공영역의 분리(공사의 분리), 가족성원 상호의 강한 정서적 연대, 성별 분업, 자녀중심주의, 가족의 법적 경계의 엄격함, 프라이버시 존중, 비친족의 배제, 핵가족, 여성의 모성화 등과 같이 근대가족을 표상하는 의미와 이미지들은 복합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서로 대립되기도 한다.

한국과 일본 두 사회에서 근대가족의 이미지로 그려지는 여러 특징에서 논쟁적인 부분은 전통적 가족관계와 근대적 가족관계의 구분과 관련된다. 우선 두 사회가 경험한 근대가족으로의 변화는 핵가족화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런 주장에는 핵가족이 역사적으로 오래되었다는 논의도 포함된다. 국내에서 최재석이나 김용섭 등은 조선시대에 편찬된 호적과 재산상속 자료, 토지대장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면서 부부가족 형태가 조선시대 전반을 통해 지배적이었음을 강조한다(최재석, 1996; 김용섭, 1958, 1960, 1963). 그렇지만 호적에 나타나는 가구 형태는 신역을 위해 작성된 편제호로서 실질적인 가족 형태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의도 적지 않다(호적대장연구팀, 2003). 더욱이 조선시대 호적에 나타나는 소규모 가구 형태를 오늘날 생각하는 부부중심의 가족관계와 동일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최재석과 김용섭은 호적에 나타난 가구 형태와는 독립적으로 조선 후기를 거쳐 신분과 계층적 조건에 따라 가족 형태와 가족전략이 달랐지만 부계, 가부장, 아들중심의 가족관계가 평민층에도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논하고 있다.

종속적 정치체제와 자기부정의 정체성을 강화했던 일제강점기하에서 가족의 법적·제도적 기초와 이념이 크게 변형되었다고 논의되고 있다. 이효재와 양현아는 호주제도의 가부장적 성격에 주목하면서 식민지 시기 젠더차별적인 가족관계가 강화되었다고 강조한다(이효재, 1990; 양현아, 2011). 김혜경과 김수진 등의

식민지 시기 신여성 연구에서는 일제가 피지배인의 자기부정을 심화하고 친족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식민국가에 의한 통치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근대가족 이념을 전파하는 데 적극적이었다고 논의한다(김혜경·정진성, 2001; 김수진, 2009). 식민지 시기 산업화와 계층적 기반이 취약했지만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근대의 이미지와 담론이 과잉 연출되어 현실과 이념 사이의 괴리가 일반적이고 일상화되었다고 강조한다.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들이 지배를 받는 민족의 자기부정을 심화하고 지배자의 아비투스에 동화하려는 열망을 강화했다면 불평등과 차별, 억압의 구조에 대한 저항의 행위와 인식도 내적인 모순을 가지게 됨을 시사한다.

이런 거시-미시 차원의 굴절과 왜곡 과정에서 가부장제의 명에가 다시 살아나고 변형되는 한편, 젠더 불평등한 근대가족의 이념이 도덕화되고 열망되는 절충 과정이 작용했을 수 있다. 불평등과 억압을 심화하는 정치경제적 조건과 이에 대항하는 전략에 내재된 지배관념의 영향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면서 한국사회 근대가족의 절충적 특징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쉽게도 식민지, 해방 정국, 초기 산업화 시기의 역동적인 정치경제적 조건과 가족 행위가 실제 어떻게 관련되었는지를 미시 수준에서 파악한 연구나 자료는 드물다. 다만 20세기 중·후반 이후 급속하게 이루어진 도시화와 공업화 과정에서 핵가족 형태의 가구구성이 크게 늘어났지만 실제 사람들의 가족의식이나 가족관계는 직계가족의 특징이 여전히 많고 세대와 남녀, 계층에 따라 상이한 가족이념과 가족전략이 혼재해 있음을 밝히고 있다(장경섭, 2009; 조한혜정, 1985; 박경숙, 2003; 한경혜·김상욱, 2010; 이재경, 2003;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1990; 김혜경, 2009). 이처럼 핵가족화라는 현상만으로 단순화하기 어려운 근대화 과정의 복합적인 가족관계에 주목하는 연구가 많다. 나아가 왜 이런 복합적인 가족관계가 형성되었는가에 관해 다양한 견해가 논쟁 중이다.

일본의 가족 변화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와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이 중에는 근대가족의 특징을 직계가족과 부부가족의 혼성으로 파악하는 논의가 많다. 19세기 후반 메이지 개혁 이후 신분제가 폐지되고 호적을 통해 모든 일본인이 이에(家) 제도로 조직되고 호주의 권리가 강화됨으로써 이에의 가족이념과 가족관계가 일본사회에 강하게 뿌리 내렸다고 논의되고 있다(上野千鶴子, 1990; 川島武

宣, 1950). 한편 종전 이후 새로운 민법과 이에 제도의 폐지, 대기업 노동자의 증가, 서민의 소득 수준의 향상 등에 따라 부부단위의 사적 가족관계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한다. 모리오카 기요미(森岡清美)는 메이지 시기부터 1990년대까지 일본사회의 가족 변화를 이他家족(직계가족)에서 부부단위의 사적 가족으로의 변화로 설명한다(森岡清美, 1998; 2005). 한편 우에노 치즈코(上野千鶴子), 오치아이 에미코(落合惠美子), 안도 기요미(安藤喜大美) 등은 근대가족의 변화가 과연 직계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변화인지 질문을 던진다. 오히려 부부단위 가족과 1990년대 이후 주목되고 있는 개인단위의 삶의 증가 현상에도 직계가족의 멘탈리티가 작용하는 점을 강조한다(落合惠美子, 1994; 安藤喜大美, 2013). 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경제가 빠르게 복구되었던 195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쳐 일본사회에서는 부부중심의 가족가치관이 확대되고 가구 형태에서도 핵가족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그럼에도 일상의 가족관계와 가족의식에서 이에의 영향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강조한다. 또한 1950년대에서 1970년대 핵가족의 비중이 증가한 데는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출생한 다산소사 세대의 인구 특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이 세대는 형제가 많고 생존율이 높았기 때문에 가족이념의 변화 없이도 핵가족의 비중이 커졌다는 것이다(落合惠美子, 1994: 81-83). 인구변동의 요인 이외에도 경제성장과 기업조직의 확장과 비농업 부문에서의 노동력 요구가 커진 것도 많은 젊은 남녀가 고향을 떠나 핵가족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당시의 인구구조와 고도성장 경제조건에서 남성 임금노동자와 전업주부가 크게 늘어나 핵가족가구가 크게 늘어났지만 같은 시기 직계가족의 구성도 감소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落合惠美子, 1994). 오히려 다산소사 세대의 가족관념은 가족의 사회적 위신, 가업, 자산, 제사를 중시하는 이에 관념의 영향이 강하다고 주장한다. 안도 기요미는 직계가족 이념에 바탕을 둔 핵가족 혹은 직계가족과 핵가족 이념이 혼용된 가족관계와 가족의식을 일본의 근대가족의 특징이라고 주장한다(安藤喜大美, 2013: 40-41).

이렇게 직계가족 이념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도시화, 경제성장과 인구 변동 상황에서 핵가족 형태와 부부중심의 가족관계가 확대되었지만 이는 서구식 근대 가족관계의 이념과는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요컨대 두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직

계가족과 부부가족의 절충과 혼재가 근대가족의 주된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직계가족과 부부가족의 절충과 혼재는 두 사회의 가족 안팎의 사회조직이 여성의 독립적인 주체성과 능력을 제약하는 가부장적 이념에 기초해 구성된 근대사회의 특징을 상징한다. 직계가족의 원리는 가부장인 남성의 가족 성원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와 처분권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친족, 사회조직으로 확대되어 권위주의적인 문화와 성불평등한 차별행위와 제도를 확대한다. 한편 핵가족 이데올로기는 부부가 중심이 되고 정서적 친밀성을 가지는 가족관계로서 독립적이고 평등한 개인에 기초한 경제·정치 공동체에 대응하는 사적인 공간으로 미화되기도 한다. 하지만 성별 역할 분업에 의해 여성의 지위를 남성에게 종속시키고 성, 친밀성, 가족의 삼위일체로 가족을 도덕화하고 여성의 정체성을 가족화한다(上野千鶴子, 1990). 이런 가부장적이고 젠더 불평등한 두 가족 이념이 결합되어 가족관계와 젠더 정체성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사회의 전통적인 가족이념이 상이하고 근대화 과정의 경제·정치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족 이념이 절충되는 방식에서도 유의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이다. 20세기 중·후반 이후 한국과 일본 사회 모두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했지만 두 사회의 경제성장 수준의 차이는 컸다. 1920년에서 1940년대에 태어난 한국인은 전 생애를 거쳐 절대적 빈곤, 빈번한 실직, 이직, 사업 실패와 생계의 어려움을 경험했다면, 같은 시대 태어난 일본인은 아마도 일본 역사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되고 안정적인 조건에서 삶을 꾸려나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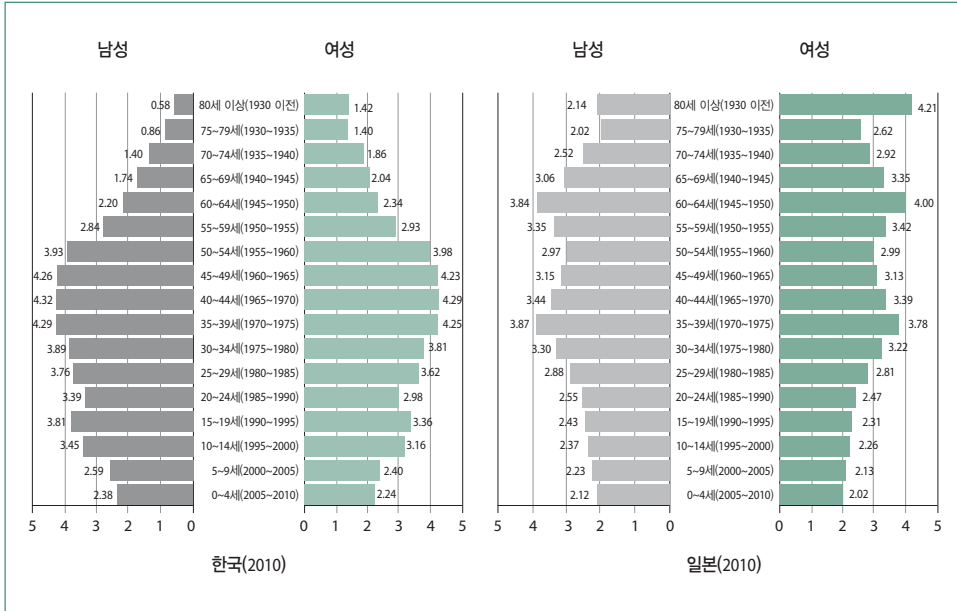
또한 직계·부계가족 이념과 근대화의 여러 조건이 상이하게 결합되면서 가족관계 내에서 세대 간, 젠더 간의 이해가 절충되고 갈등하는 양상도 두 사회는 크게 달랐을 것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일본에서 부부가족 이념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확대된 신중간 계층과 여성해방을 강조하는 페미니스트들을 중심으로 수용되고 전파되었다(今田繪里香, 2007; 김수진, 2009). 한편 일본에서는 가족에서 국가에 이르는 가부장체제에 저항하는 치열한 정치적 갈등이 없었다고 논의된다(김수진, 2009: 433).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를 통틀어 국가와 시민사회, 세대와 젠더 사이에 치열한 정치적 갈등이 가족 변화를 둘러싸고 전개되었

다. 식민지 시기에는 문명개조론과 신가정론을 옹호하는 세력에 의해 전통가족이 가부장적이고 성억압적이라고 비판되고 새로운 가정생활에 기초한 사회 개혁을 강조했다(김수진, 2009). 산업화와 민주화 시기를 거치면서 오랜 동안 실질적으로 생계와 자녀 뒷바라지에 헌신해왔던 여성들이 가족 내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가부장적 가족관계에 저항했다(왕혜숙, 2013; 김혜경, 2009, 2013; 양현아, 2011; 이동진, 2002). 한국사회에서 가족관계의 변화는 가족을 국가권력의 기초로 동원하려는 통치권력의 이해, 부계질서의 근간을 유지하려는 가부장의 이해, 그리고 가족을 여성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려는 이해(利害) 등이 서로 각축하면서 형성된 매우 정치적인 구성물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 사회에서 가족의식과 가족관계의 변화는 정치, 경제, 문화적 경험을 시대적으로 집합적으로 공유한 다양한 세대의 대체와 계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어떤 세대가 집합적으로 공유하는 가치, 취향, 이념적 지향은 사회구조의 정치, 경제, 문화적 특성과 다양한 세대 내 세대 간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된 것이다(박재홍, 2005; 전상진, 2005). 국내에서는 가치관, 취향, 생활조건, 정치적 태도의 세대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세대의 경험과 의식, 세대관계가 시대와 생애를 통해 어떻게 구성되고 변화되었는가를 밝히는 실증적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세대와 세대관계에 관한 논의들이 주로 거시사회 수준의 집합적 행위와 의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사회 구조와 변화의 미시적 기초라 할 수 있는 가족관계의 변화에 배태된 세대적 특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개념화와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일본학계에서는 일본의 독특한 근대가족의 특성을 세대의 인구 특성과 연관지어 연구하는 논의들이 있어 주의를 끈다. 학자에 따라 그 기준이 다소 다르지만 일본에서 다산소사 세대는 1920년대 중반에서 1940년대에 태어난 세대를 가리킨다. 다산소사 세대는 1925년 이전에 태어난 출산율과 사망률이 높았던 다산다사 세대와 구분되고, 출산율이 크게 떨어진 1950년 이후 태어난 세대인 소산소사 세대와도 구분된다(落合惠美子, 1994; 安藤喜大美, 2013). 이들 연구도 세대를 규정하는 기준으로 인구 요인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세대의의식과 경험의 구체적인 정치, 경제, 문화적 내용을 간과한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는 일본보다 훨씬 더 압축적으로 인구가 변천하여 다산소사 세대는



자료: <http://kosis.kr/> <http://www.e-stat.go.jp>

그림 1 한국과 일본의 인구 피라미드

문화, 정치, 경제적인 차원뿐 아니라 인구구조에서도 이질적인 세대를 포함하여 그 범주의 의미를 분명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출산율이 높고 사망률이 떨어졌던 1920년대에서 1940년대 태어난 코호트는 형제자매가 많아 다산소사 세대에 속하는데, 출산율이 크게 떨어졌던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 태어난 코호트도 가입인구의 영향 때문에 출생 코호트 크기가 커서 다산소사 세대에 속할 수 있다. 앞의 세대는 형제자매가 많지만 출생 코호트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뒤의 세대는 형제자매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출생 코호트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다산소사 세대의 기간 폭이 넓고 그 성격이 다르고 경제, 사회, 문화적 경험도 크게 변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다산소사 세대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분명하게 가르기가 쉽지 않다. 일본의 다산소사 세대가 이에 이념과 부부가족 이념을 절충하여 가족관계를 구성했다면, 한국의 다산소사 세대의 가족의식에는 유교적 가족 이념, 부부가족 이념, 그리고 탈가족 이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II. 연구 자료

19세기 후반 이후 근대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한국과 일본에서 근대가족이 어떻게 구성되고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과 나고야에 거주하고 있는 1920년대에서 1940년대에 태어난 노인의 생애사를 조사했다. 두 사회에서 가족관계는 가계, 가산, 가업의 계승과 상속, 부부관계, 자녀부양과 노부모부양, 가족의식 등의 복합적인 차원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여 유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이르는 생애단계별로 그들이 경험한 가족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고찰했다.

연구를 위하여 서울과 나고야에서 1920년대에서 1940년대 사이에 출생한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서울과 나고야는 전통과 근대가 복잡하게 섞여 있는 오래된 도시다. 서울은 역사적으로 오랜 동안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고, 해방 이후 격동의 근대사가 엮어졌고 인구, 경제, 정치, 문화 변동의 메카폴리스가 되었다. 나고야는 근세와 근대 일본의 중심 문화가 만나는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다. 무사들의 권력다툼이 치열했던 근세 전쟁 시기 최고 권력자들의 근거지였기 때문에 사무라이 문화가 발전했다. 17세기를 통해 나고야는 이웃 지역의 산업과 연결되어 경제적으로 번영했다. 나고야와 나고야가 속해 있는 아이치 현은 20세기 초반 일본의 군국주의 체제에서 대표적인 군수산업 지역이었다. 섬유, 무기, 석탄, 항공기 등 군수산업이 번창했고, 많은 조선인 노동자가 동원되기도 했다. 현재 많은 기업과 노동자가 토요타 자동차 관련 산업과 연결되어 아이치 지역 근처에 분포되어 있다. 최근에는 브라질계 일본인을 포함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락을 이루며 살고 있다.

서울과 나고야 노인의 설문조사는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항목은 유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의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다양한 사건과 경험으로 구성했다. 유소년기 가족관계에 대한 조사 내용은 출생 장소와 출생 방법, 출생 시 가구 형태, 형제자매 수, 유소년기 양자 경험이나 출가 경험, 돌봄을 받은 상황, 교육 상황을 포함했다. 청장년기의 가족관계는 결혼, 취업력, 출산, 부모지원 관계, 자녀 돌봄에 대한 항목으로 조사했다. 노년기 가족관계는 조

사 당시의 거주 형태, 가사활동, 자녀와의 경제적·신체적 지원관계, 재산과 제사의 상속에 대한 태도와 가족 태도에 대한 항목으로 조사했다. 설문조사는 아이치 교육대학 야마네마리(山根眞理) 선생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아시아 노인의 생애사 연구>의 하나로 실시되었다(山根眞理 外, 2014). 조사대상은 성, 연령, 계층에 따라 구분해 표집했다. 서울 거주 노인은 서울 지역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4개 층위로 구분하여 각 지역에서 2개 구를 선택해 그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접촉하여 전체 100명의 인터뷰 사례를 수집했다. 나고야에서는 나고야 여성 문화회관과 실버인재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86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나고야 지역 응답자 노인은 대부분 안정된 직장과 가정생활을 한 중산층이었다. 설문조사가 확률표본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일반화하는 데 제약이 많았다. 설문대상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서울과 나고야 노인의 심층 인터뷰 일부는 설문조사의 사전조사로서 일부는 설문조사 뒤 심층 인터뷰에 다시 응하고 생애 정보가 연구자에게 특별히 관심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했다. 후자의 경우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생애사와 가족사의 특성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인터뷰 내용을 구성했다. 서울 노인의 심층 인터뷰는 2008년 상반기에서 2011년에 걸쳐 1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 2는 인터뷰 참여자의 생애단계별 가족관계의 특성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지○○ 씨를 제외한 모든 인터뷰 참여자가 어릴 때 고향을 떠난 경험이 있었다. 유소년의 기억은 대부분 가난과 고생과 관련된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의 고생 속에서 자라거나 친척집에서 천덕꾸러기로 자란 경험도 있었다. 또한 어려운 형편에서도 근대교육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신○○, 최○○, 계○○, 지○○, 원○○, 최*○). 대부분 중매로 결혼했고 결혼 후 부모와 함께 살았거나 부모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친척과 왕래하면서 지원관계를 유지했다. 노년에는 대부분 부부단위거나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삶의 보람으로 자녀들이 대학 교육을 마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강조했다.

나고야 노인의 인터뷰는 필자가 아이치에 머물렀던 2011년 3월에서 8월에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야마네마리 선생과 통역을 도와준 중국조선족 출신 유학생인 방국화 씨와 김추연 씨와 함께했다. 표 3은 나고야 노인 인터뷰 참여자의 생애단계별 가족관계의 특성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노인은

표 1 설문대상의 특성

응답자의 특성		서울	나고야		
성	남성	31.0	48.8		
	여성	69.0	51.2		
	계	100.0(N=100)	100.0(N=82)		
출생 연도	1910~1914	1.0	—		
	1915~1919	0.0	—		
	1920~1924	3.0	3.7		
	1925~1929	19.0	17.1		
	1930~1934	18.0	32.9		
	1935~1939	30.0	14.6		
	1940~1944	25.0	31.7		
	1945~1949	4.0	—		
	불명·무응답	5.0	0.0		
	계	100.0(N=100)	100.0(N=82)		
출생 지역	서울	17.0	名古屋市内	31.7	
	부산	2.0	愛知県内	59.8	
	대구	2.0	東海地方	1.2	
	인천	2.0	北海道	7.3	
	광주	0.0	東北地方	0.0	
	대전	1.0	関東地方	0.0	
	울산	0.0	甲信越地方	0.0	
	경기도	12.0	北陸地方	0.0	
	강원도	5.0	近畿地方	0.0	
	충청북도	2.0	中国地方	0.0	
	충청남도	6.0	四国地方	0.0	
	전라북도	10.0	九州地方	0.0	
	전라남도	9.0	沖縄	0.0	
	경상북도	6.0	外国	0.0	
	경상남도	3.0	不明·無回答	0.0	
	제주도	2.0			
	북한	15.0			
	외국	6.0			
		계	100.0(N=100)		100.0(N=82)

대부분 노년에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중산층이었다. 어릴 때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온 인터뷰 참여자도 있었고, 후쿠토메, 이세노부, 이케다 씨는 일제강점기 대만과 중국, 한국에서 유소년 시절을 보냈다. 유소년 시기의 부모를 생계

표 2 서울 노인 인터뷰 참여자의 생애단계별 가족관계의 특성

시기	1920~	1940~	1960~	1980~	2000~	2010
역사적 사건	일제강점(1910~1945) 전쟁/분단(1950~), 경제개발계획(1961~), 가족계획(1961~1995), 새마을운동(1970년대), 유신체제(1972~1979), 민주화운동(1980년대), 외환위기(1997), 저출산 고령화					
생애단계별 가족관계	출생(b) → 유소년(c) → 청년(y) → 장년(m) → 노년(o)					
신○○	b. 여, 1935년, 일본 출생 → c. 아버지가 일본에서 전기공고 교직생활, 1939년 만주에서 사망. 어머니 명문가 출신. 형제자매 5남매 → y. 일본에서 여고 나옴. 중매결혼 → m. 남편 제대 후 시누이 사업 도움. 남편 50대 초반 당뇨로 사망. 자녀 2남2녀. 자녀 대학교육. 노부모 동거 경험 없음. 노부모 병구완 → o. 혼자 삶					
조○○	b. 여, 1938년, 충주 농가 출생 → c. 아버지 농사, 면공무원 생활, 서울에 와 음식점 지배인 함. 어머니 농사지음. 형제자매 7남매, 가난함, 특별한 돌봄 없이 성장함, 천덕꾸러기 대접, 아들 중심 가족문화 → y. 중학교 졸업 후 서울로 와 일함. 연애결혼 → m. 남편 군대 제대 후 건설업 종사. 자녀 2녀1남, 자녀 대학교육. 부모에게 상속받은 것 없지만 큰덕을 도움 → o. 부부생활. 자녀의 도움 기대하지 않음, 그러나 자녀들이 잘함.					
최○○	b. 여, 1937년, 통영 출생 → c. 교육 때문에 서울로 이주. 형제자매 3남4녀 → y. 여고 졸업. 경리, 학원, 집일. 중매결혼 → m. 남편 북한 출신, 군대 제대 후 점원, 재봉 일. 44세 교통사고로 사망. 자녀 2남1녀, 노부모 동거 경험 없음 → o. 미혼 아들과 동거. 아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처지					
계○○	b. 남, 1937년, 북한 출신 → c. 아버지 중국 유학, 공무원, 장사. 자녀교육에 관심이 큼. 어머니는 가정일, 내조. 형제자매 3남3녀. 해방 후 월남, 서울로 이주, 전쟁 중 이리에서 생활 → y. 성균관대 졸업, 교사. 중매로 결혼 → m. 아내, 전업주부. 경제관리는 아내가 함. 자녀 1남. 노부모 동거하지 않았지만 경제적 도움 드림 → o. 부부생활. 자녀세대와의 독립된 생활 강조					
홍○○	b. 여, 1937년, 대전 출생 → c. 아버지 형무소에서 근무, 1936년 사망하고 어머니 재혼하여 할머니와 큰집에서 자람. 초등학교 중퇴 → y. 집안 일. 연애결혼 → m. 남편 제대 후 장사, 자녀 3남, 모두 대학 나옴. 시부모와 동거 경험 없음. 조카가 많이 와 삶 → o. 사별 후 혼자 생활. 경제적으로 자식들이 도와줌					
박○○	b. 여, 1935년, 강원도 농가 출생 → c. 아버지 일찍 여임. 어머니 농사지음. 형제자매 2남2녀 → y. 고등학교 졸업. 중매결혼 → m. 남편 북한 출신, 제대 후 중기사업, 47세에 간암으로 사망. 자녀 2남1녀, 모두 대학 나옴. 자녀가 이민. 시부모 동거 경험은 없으나 친척들이 자주 옴 → o. 사실 재혼 상태.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려움					
황○○	b. 여, 1934년, 충남 서천 가난한 농가 출생 → c. 아버지 만주에서 운전사, 고향에 돌아와 농사지음. 자녀교육에 관심. 어머니 농사. 형제자매 5남3녀 → y. 초졸. 농사, 벽돌공장 일. 중매결혼 → m. 남편과 농사, 벽돌공장, 쉬지 않고 일함. 자녀 3남1녀, 큰아들 고등학교 때 서울 이주. 고향에서 시부모와 6년간 살면서 집, 논 서마지기 얻어 분가함. 부모 병원 수발 → o. 부부생활. 생활은 집세와 자녀들의 지원에 기초함					

표 2 서울 노인 인터뷰 참여자의 생애단계별 가족관계의 특성(계속)

시기	1920~	1940~	1960~	1980~	2000~	2010
지○○	b. 남, 1930년, 서울 출생 → c. 아버지 천식으로 힘든 일을 못함. 어머니 장사. 형제자매 5남 3녀 → y. 고등학교 졸업. 군대, 기술직. 중매결혼 → m. 아내 집안일. 자녀 2남1녀, 대학 나옴. 부모, 친척과 동거 → o. 사별 후 사실상 재혼. 집세로 생활					
원○○	b. 남, 1936년, 충북 음성 출생 → c. 아버지 1950년 한국전쟁 때 독립병으로 사망. 어머니 농사일. 형제자매 3남2녀 → y. 기계공고 졸업. 중매결혼 → m. 아내 농사, 장사. 자녀 2남 3녀. 어머니와 함께 삶 → o. 부부생활					
최*○	b. 남, 1922년, 강진 출생 → c. 제주에서 작은어머니와 삶. 어머니는 고향에서 농사. 형제자매 3남3녀, 본인 외 무학 → y. 독학으로 공무원. 중매결혼 → m. 장사, 자녀 2남4녀, 대학 나옴. 작은어머니와 삶 → o. 부부와 아들 함께 삶					

부양자-전업주부의 이미지로 기억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인터뷰 참여자는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았고 대부분 중매로 결혼한 서울 노인 참여자들과는 달리 연애로 결혼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결혼 뒤 부모와 함께 산 경우도 적지 않은데 가업 유지의 이유가 컸다는 대답이 많았다. 결혼생활을 부부중심의 가족관계로 특징지을 수 있는 인터뷰 참여자는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연애로 결혼한 다카키와 노다 씨다. 결혼한 뒤 부모와 함께 산 경험이 없는 다른 인터뷰 참여자들은 직업상의 이유로 따로 살았던 경우가 많았다. 이세노부 씨는 독신으로 살아왔다. 함경북도에서 출생했는데 아버지는 의사고 어머니는 대상인의 딸로 근대교육을 받고 전업주부로 생활했다. 부모의 이혼 이후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고 구술한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대체로 결혼 이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해왔고 노후에는 자녀들과 떨어져 살면서 가끔씩 왕래하는 데 만족하고 있다. 이 밖에 공식적인 인터뷰는 아니었지만 아이치에 머무는 동안 아이치 노인사회복지협회가 운영하는 소규모의 노인모임(아츠마린)에 참여하면서 여러 주제를 가지고 노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도 일본 노인의 생애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표 3 나고야 노인 인터뷰 참여자의 생애단계별 가족관계의 특성

시기	1920~	1940~	1960~	1980~	2000~	2010
역사적 사건	치안유지법(1925), 만주사변(1931), 중일전쟁(1937~1945), 태평양전쟁(1941~1945), 패전(1945), 미일안보조약조인(1951), 동경올림픽(1964), 버블 붕괴(1990년대 초반), 저출산 고령화					
생애단계별 가족관계	출생(b) → 유소년(c) → 청년(y) → 장년(m) → 노년(o)					
요네야마	b. 남, 1934년, 가고시마 출생 → c. 아버지 여중학교 교장. 어머니 전업주부. 형제자매 2남 5녀 → y. 대학 졸업, 교사. 중매결혼 → m. 아내 사별. 자녀 2남. 직장 때문에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살 → o. 미혼아들과 함께 살					
미즈타니	b. 남, 1940년, 미에현 출생 → c. 아버지 해산물집 운영, 1945년 사망. 어머니 장사를 이음. 형제자매 3남1녀 → y. 대학 졸업. 셀러리맨. 연애결혼 → m. 아내 전업주부. 자녀 1남 2녀, 잦은 전근 때문에 부모와 따로 살 → o. 부부생활					
고이즈미	b. 여, 1940년, 도야마현 출생 → c. 아버지 현청 직원. 어머니 전업주부. 형제자매 1남2녀 → y. 고등학교 졸업, 회사생활. 중매결혼 → m. 남편 대기업 회사원. 자녀 2남. 신혼 때 시부모와 동거. 시부모 병 구완. 제사지냄 → o. 혼자 생활					
요시다	b. 여, 1936년, 아이치현 출생 → c. 아버지 군인. 어머니 전업주부. 형제자매 1남2녀 → y. 고등학교 졸업. 중매결혼 → m. 남편 가업과 회사일 병행, 51세에 사망. 자녀 1남1녀. 시부모와 동거, 병 구완, 제사지냄 → o. 혼자 생활					
와타나베	b. 남, 1929년, 시즈오카 출생 → c. 아버지 공무원. 어머니 전업주부. 형제 4남 → y. 대학 졸업, 연구직. 중매결혼 → m. 아내 전업주부, 자녀 1남1녀, 부모와 따로 살 → o. 부부생활					
이케다	b. 남, 1927년, 교토 출생 → c. 아버지 군인, 차가게 운영. 어머니 일찍 돌아가심. 형제자매 3남4녀 → y. 고등학교 졸업, 회사원. 연애결혼 → m. 아내 전업주부. 자녀 2녀. 장인부모 동거. 제사 참여 → o. 부부생활					
구마사와	b. 남, 1942년, 나고야 출생 → c. 아버지 섬유업. 어머니 가게 일 도움. 형제자매 3남1녀 → y. 대학 졸업, 섬유업 계승. 중매결혼 → m. 아내 주부, 가게일 병행. 자녀 2남1녀. 부모와 동거. 부모, 고모, 처가 제사 → o. 미혼 아들과 동거					
다카키	b. 여, 1940년, 기후현 출생 → c. 아버지 데릴사위. 채석업. 어머니 농사. 형제자매 1남1녀 → y. 고등학교 졸업. 연애결혼 → m. 남편 회사원. 본인도 계속 일. 자녀 2녀. 부모와 따로 살 → o. 배우자 사별 뒤 딸과 살.					
아카사카	b. 여, 1940년, 상하이 출생 → c. 아버지 상하이군수물품 조달. 어머니 전업주부. 자매 5녀 → y. 고등학교 졸업. 연애결혼 → m. 남편 사업. 자녀 2남. 남편 데릴사위. 어머니와 함께 살. 친부모 제사. → o. 혼자 생활					
이세노부	b. 여, 1931년, 함북 출생 → c. 아버지 의사, 함북 철도병원 근무. 어머니 대상인의 딸, 근대교육 받음. 한반도 체류 중 결혼, 전업주부, 이혼 → y. 대학 졸업, 회사원. 파혼 → m. 직장생활 → o. 혼자 생활					
노다	b. 여, 1944년, 나고야 출생 → c. 아버지 공무원, 호텔지배인. 어머니 지방유지의 딸, 근대교육을 받고, 전업주부. 형제자매 2남1녀 → y. 대학 졸업. 연애결혼 → m. 남편 회사원. 자녀 1녀. 부모와 동거 경험 없음 → o. 부부생활					

표 3 나고야 노인 인터뷰 참여자의 생애단계별 가족관계의 특성(계속)

시기	1920~	1940~	1960~	1980~	2000~	2010
마츠모토	b. 남, 1942년, 나고야 출생 → c. 아버지 양자로 입적, 회사 경영. 어머니 양녀로 입적, 전업주부. 형제자매 1남2녀 → y. 대학 졸업. 중매결혼 → m. 아내 전업주부. 자녀 2녀, 부모와 동거, 제사 관리 → o. 부부생활					
후쿠토메	b. 남, 1933년, 대만 출생 → c. 아버지 한센병수용소사업, 귀송 후 양복점 운영, 어머니 함께 사업. 형제자매 2남2녀 → y. 고등학교 졸업, 가업 계승. 연애결혼 → m. 아내 전업주부, 가업 보조. 자녀 1남1녀. 부모와 동거, 제사 관리 → o. 부부생활					
요시다	b. 남, 1928년, 나고야 → c. 아버지 장사, 첫부인과 사별 뒤 어머니와 재혼. 형제자매 2남1녀 → y. 고등학교 졸업, 세일즈맨 → m. 세 번 결혼 → o. 부부생활					
모리	b. 여, 1944년, 나고야 → c. 아버지 도매상. 어머니 주부 → y. 대학 졸업. 중매결혼 → m. 남편 남편 형의 병원에서 사무, 자녀 1남. 양가 부모와 큰집 돌봄 → o. 부부생활					

IV. 생애단계별 가족의 변화

1. 유소년기의 가족(1920년대~1950년대): 이주, 전시체제, 공업화 속에서 직계·부계 가족의 변형과 부부가족의 형성과 통제

응답자가 태어나고 성장한 시기는 식민지, 봉건제, 자본제적 권력 갈등이 소용돌이치는 시대였다. 군국주의 일본 정부는 안으로는 국민국가 체제를 공고화하는 장치들을 체계화하고, 밖으로는 전쟁과 외교를 통해 일본의 경계를 확장하려 했다(小熊英二, 1998). 가족이 국가 통치의 기본단위로 재편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가부장적 질서가 강조되었다. 근대화가 보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시민 사회의 민주화와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요구들이 통제되었고, 가족을 사적영역으로 만들고 싶은 욕구도 국가주의 관점에서 통제되었다(川島武宣, 1950; 森岡清美, 2005). 한편 한반도에서는 일본에 의한 국권이 침탈되고 전통적 친족 중심의 공동체의 기반이 크게 약화되었지만, 강압적인 식민통치 권력에 대한 민족적 저항 속에서 전통적 가족이념과 가족관계가 복구되기도 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는 대부분 다른 곳에서 이주한 경험이 있었다(표 4). 국내뿐 아니라 북한과 외국(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 태어난 이들도 포함된다. 서울은 식민지, 귀향이동, 다양한 난민이동, 농촌지역의 잉여인구의 배출효과,

급속한 공업화 요인이 시기적으로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도시인구의 생활과 도시 문화가 독특하게 형성되었다. 윤종주는 식민지와 전쟁 시기 난민의 주된 정착지였던 도시지역에는 생존주의와 발전주의 의식이 강했고 이것이 이후의 급속한 도시화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한다(윤종주, 1991). 반면 나고야에 거주한 이들은 나고야 출생자가 많았다. 고향이 다른 지역인 경우 나고야가 속해 있는 아이치현, 그리고 인근 지역인 도카이(東海) 지역 출신이 대다수다. 나고야는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속하지만, 다른 대도시에 비해 인구이동이 적고 사람들의 정서도 시골스런 부분이 많다고 평가된다. 사적인 관계에 관심이 많고 지방의 소소한 사건이나 사고를 이웃의 일처럼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성사하려고 해도 오랜 관계가 중요시되고, 외부인에 대해서 거리감이 있다고 한다. 나이 든 일본인 사이에서는 일본에서도 가장 일본적인 도시가 나고야라고 인식되기도 한다.

노인이 태어날 당시 출산 장소의 차이도 흥미롭다. 태어난 곳은 산모와 태아가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되는가, 태어난 아이에 대한 권리와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상징할 수 있다. 또한 돌봄 네트워크, 가족 친족의 구조, 생식에 대한 의료기술의 영향, 계층적 특성 등을 상징한다(山根眞理 外, 2014).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920년대에서 1940년대 출생한 세대의 출생 장소에서 흥미로운 지역별 차이가 나타난다. 서울 지역의 응답자는 대부분 부모의 집(신가)에서 출생했다. 한편 나고야 주민의 경우 친가(조부모의 집)에서 태어난 비율이 높았다. 나고야 응답자 중에는 병원에서 출생한 사례가 많은 점도 주목된다. 1920년대와 1940년대 당시 나고야는 도시화와 공업화가 이루어졌던 지역이었다. 또한 일본 전체적으로도 근대적 의료 이용이 점차 확대되었다. 태어날 때 분만을 도운 사람도 유의하게 차이를 보인다. 서울 응답자는 조모가 자신을 받았다고 한 사례가 많았다. 이는 비록 부모와 떨어져 산다 하더라도 부계적 돌봄 네트워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나고야 응답자는 출생할 때 산파가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았다. 산파는 근세 일본사회에서도 흔히 존재했다고 한다(山根眞理 外, 2014).

이러한 결과는 근대가족 형성에서 돌봄 네트워크의 변화가 중요함을 주목하게 한다. 물론 서울과 나고야 지역에 거주한 원주민과 이주민의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서울 노인의 부모는 나고야 응답자 부모에 비

해 타 지역에서 이주한 비율이 높았고, 그에 따라 부계적 친족 돌봄 네트워크가 상당히 약화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신거(新居: 부부가 결혼하여 부모의 집에서 분가하여 새로운 거주지에서 사는 형태) 경향이 꼭 부모와 따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황○○, 지○○). 부부가 분가한 거주지에 부모가 합류하는 경우도 있다. 인터뷰에 참여했던 황○○ 씨는 어릴 때에는 부모와 형제, 할머니, 삼촌이 한 방에서 살았다고 기억한다. 그리고 할머니의 정을 받으며 자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신거 경향이 높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가설로 신거 현상은 20세기 초반만이 아니라 근세를 통해 평민층의 일반적인 생활방식일 수 있다는 점이다. 호적자료와 양안(토지대장)을 분석한 최재석(1996)과 김용섭(1963) 등의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조선시대를 관통하여 부부가족이 일반적인 가족 형태였다고 주장한다. 잉여생산이 제한되었던 토지 소유관계에서 20세기 초반에도 직계(부계) 확대가족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제한되었을 수 있다.

한편 나고야 지역은 종래부터 나고야 출신이 많고 이주가 제한되었고 대대로 집을 이어받는 경우도 많아 부계적 돌봄 네트워크가 강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 또한 나고야 노인이 조부모 집에서 태어난 비율이 높았던 것은 직계가족이 경제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었던 조건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정한다.

이런 해석에 아버지 직업의 분포가 유관한 의미를 보탠다고 생각한다. 응답자의 아버지는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반에 태어난 이들이고, 1920년대에서 1940년대까지 어떤 이는 길게는 1960년대까지 활동했다. 따라서 아버지의 주된 직업 특성에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의 경제 상황을 유추해볼 수 있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 응답자 노인의 경우 아버지의 주된 직업은 대부분 농업이었다. 그렇지만 전문직, 기술직, 사무직, 판매직 등 비농업 부문에 종사한 사례도 적지 않게 보인다. 그러나 비농업 일자리 상황은 좋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참여자들의 구술에서도 당시 몹시 빈궁한 삶에서 아버지는 가계를 직접적으로 책임지지 못했고 실질적인 가계는 어머니가 맡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집을 비우는 경우도 많았다(황○○, 최○○). 첩을 두는 게 흥이 아니었던 시대였다고 한다. 밥만 먹고 살면 아내를 넷을 두고 산 사람도 있으며 여자가 참고 살아야 했던 때였다고 구술했다(박○○). 가난하고 자식들은 커가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고생은 말할 수 없이 컸다(최○○). 구술 내용에서 아버지

표 4 성장기의 가족 특성

	서울	나고야
태어난 곳		
친가	12.0	32.9
외가	3.0	14.6
부모의 집(신가)	76.0	18.3
조산소	2.0	3.7
병원	5.0	11.0
기타	0.0	4.9
모르겠다	7.0	14.6
계	100.0(N=100)	100.0(N=82)
출산을 도와준 사람		
조모	24.0	0.0
외조모	10.0	1.2
아버지	9.0	0.0
산파	9.0	73.2
의사	4.0	9.8
기타	21.0	1.2
모름	22.0	14.6
계	100.0(N=100)	100.0(N=82)
아버지의 직업		
전문	8.0	17.1
기술	9.0	1.2
관리	5.0	12.2
사무	10.0	7.3
판매	14.0	14.6
서비스	1.0	3.7
보안	1.0	1.2
농림·어업	42.0	18.3
생산공정	1.0	13.4
기타	4.0	—
무직	3.0	0.0
불명/무응답	2.0	11.0
계	100.0(N=100)	100.0(N=82)
형제자매 수 (평균, 명)	5.1	3.9

는 부재하고 방황하고 나약하고 무책임하고 권위만 내세우는 원망의 대상으로 그려진다. 부모관계에서는 부부 간의 친밀성이 가족 내로 편입되지 않았고 성별

분업관계도 명확하지 않았다.

한편 나고야 응답자 아버지의 직업은 전문기술, 관리, 사무직, 판매직, 생산직, 농림어업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것은 당시 한국과 일본의 산업화 정도의 차이가 컸던 상황을 반영한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 일본사회에서 도시화와 공업화와 교육 수준의 향상은 부부중심의 가족을 조성한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고 논의된다(今田繪里香, 2007). 또한 인터뷰 참여자의 가족 중에는 300년 가업을 이어온 사례도 있었다(미즈타니). 이는 18세기부터 직계·부계가족인 이에(家)의 이념이 평민층에서도 점차 확대되었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과 부합한다(日本法社會學會 編, 1956). 또한 인터뷰 참여자의 구술은 19세기 후반 서민층에서 이에와 이에의 이름(氏)을 새로 만들고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게 여겼던 풍경을 그리고 있었다(요네야마). 아버지는 천황, 국가, 군인의 거울로 비쳐졌다(요네야마, 구마사와). 소년인 응답자의 눈에 아버지는 매우 엄한 분이었지만 존경하는 마음이 자연스러웠다고 한다. 그리고 전문직과 공무원 등 새로운 중산층 가족이 늘어난 상황도 기억된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에는 가업을 지속하기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미즈타니, 다카키)와 전업주부 어머니(노다, 이세노부)상이 겹쳐진다.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 응답자 중에도 전업주부 어머니로부터 돌봄을 받았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들 사례에 따르면 어머니는 지역의 유지 집안 출신의 딸이었고 의사나 전문직 출신의 아버지와 결혼하여 전업주부로 살았다(노다, 이치노부). 이처럼 공업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새로운 가족 이념의 영향이 확대된 상황에서 직계가족 형태가 오히려 한국에서보다 더 잘 유지된 것으로 기억하는 게 흥미롭다. 공업화와 근대적 교육의 확대와 중산층의 성장에 따라 부부중심 가족관계에 대한 로망도 확산되었지만 직계·부계가족 이념이 일반적이고, 전시동원체제에서 개인의 욕구가 상당히 통제되었고, 또한 군수연관산업이 확장되면서 가업을 대물림하고 확장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도 컸던 것이 직계가족관계를 강화한 요인일 수 있다(요시다, 이케다, 구마사와).

서울 노인 응답자의 형제자매 수는 평균 5.1명으로 집계되었다. 권태환 등의 국내 연구에 따르면 1920년대에서 1940년대 합계출산율은 6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Kwon, 1977). 나고야 지역 주민의 형제자매 수는 3.8명, 본인을 합하면 4.8명 수준이다. 일본 후생성 자료에 따르면 1925년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5.1

명, 1930년도 합계출산율은 4.7명, 1940년도 합계출산율은 4.1명으로 추정되는데 1920년대에서 1940년대 출생한 세대는 한국보다 형제자매 수가 적지만 다산 소사 세대라고 볼 수 있다(日本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11). 이처럼 1920년에서 1940년대에 걸쳐 출산율이 높았던 것은 조선에서는 궁핍과 인구 압력이 심화된 상황에서도 근대적 출산통제방법이 제한되었기 때문일 수 있고, 일본에서는 개인의 자율적인 출산 조절 욕구와 지식이 군국주의 인구 관념에서 엄격히 통제된 때문일 수 있다(박경숙, 2009; 田間泰子, 2014).

서울 노인은 어릴 때는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기억한다. 아이들이 많아서 천덕꾸러기였고, 가난하여 학교에 가지 못한 것을 일생의 한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었다(황○○). 어렸을 때 노골적인 여성 차별적인 관념이 일반적이었고 여성은 희생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한다고 배웠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어렸을 때부터 갖은 고생을 다했고(홍○○), 분단과 전란으로 재산을 모두 잃고 고향을 떠나 어렵게 살았다(계○○). 그렇지만 부모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서 어려운 살림에도 고등교육을 지원하거나 독학을 권한 경우도 있었다(계○○). 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응답자 자신의 자녀 양육관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나고야 노인 중에는 부모의 세심한 돌봄을 받았다고 기억하는 이들이 있었다. 부모가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 공부도 가르치고 여기 저기 데리고 다녔다고 기억한다(고이즈미). 여성 노인에서는 근대적인 교육이 독립된 생활을 위한 준비보다는 부모의 지위 덕택에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교양으로서 인식되었다. 여성에게 교육은 직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술적 감성과 교양을 취득하여 좋은 배필을 만나기 위해 익혀야 하는 상류문화로 인식되었다(이세노부, 노다). 부유한 집안의 딸은 아들과는 달리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 한다는 훈육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요시다). 어릴 때 남존여비사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여성의 중요한 덕목이 돌봄이라고 인식하는 인터뷰 참여자가 있는가 하면(요네야마), 가부장적인 문화에 저항의식을 가진 참여자도 있었다(다카키). 식민지에서 자유롭게 생활했지만 귀송 이후 고향의 보수적인 문화에 문화 충격을 경험한 사례들도 있었다(아카사카, 이세노부).

2. 성인기의 가족관계: 직계가족과 부부가족의 절충논리 속에서 형성된 성별 분업

1) 결혼, 출산, 자녀 교육

한국전쟁은 많은 것을 앗아갔다. 궁핍하고 만성적인 실업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었다. 응답자 노인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향의 아픔을 경험했다. 학업과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찢어지게 가난해서, 부모를 잃고 친척의 눈치를 받으며 살다가, 혹은 부모의 구박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이가 많았다. 고향과 부모로부터의 분리는 자유의 공간을 부여했을 수도 있지만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고난이기도 했다. 사람들의 가치관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이전의 가치대로 살 수 있는 조건도 크게 훼손되었고 새로운 삶의 조건에 적응하면서 가치도 변형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들어서면서 성장과 안보 이데올로기, 권위주의 문화 속에서 경제적으로 잘살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가족의 제도, 이념, 생활 차원에는 친족, 호주, 근대 가족 논리의 모순적인 절충 현상이 강화되었다. 1958년 제정된 민법에서는 부부중심의 소가족제의 법적 기준이 강조되어 소가족의 도덕적 지위가 공고화되었지만, 호주제의 법적 기초가 지속되었고 여성의 재산과 친권 지위가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여성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졌다(양현아, 2011; 김혜경, 2009; 이동진, 2002). 일상생활에서도 부계가족과 부부가족의 이념이 모순적으로 절충되고 혼용되는 현상이 강화되었다. 한편으로 가문의 계승, 남아선호, 효와 같은 부계가족 이념의 영향이 컸고 동시에 산업화와 가족계획운동의 확산과 더불어 성 역할분업과 전업주부 이데올로기의 영향이 강화되고 사회이동과 출세를 위한 가족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가족주의 심성이 굳어져갔다.

패전과 미군점령기를 거치면서 일본의 청년들은 시대가 변했다고 생각했다(미즈타니, 요네야마).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고 가족과 지역사회의 울타리를 벗어나 좀 더 넓은 세상에서 꿈을 펼쳐보고 싶었다. 호주제가 폐지되고 자유연애와 남녀평등 사상과 자유의 공기를 기대했다. 그럼에도 인터뷰 노인들의 심성에는 전시체제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 요네야마, 이케다, 미즈타니, 구마사와, 마츠모토, 후쿠토메 씨는 메이지 정신이라 자부하는 자기규율, 충, 연대, 의리, 헌신,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전후 일본의 경제부흥은 전시체제와

마찬가지로 안보, 국력, 일본의 존재감을 중시했던 집단 의식을 통해 성취되었다. 공과 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고 집단과 개인은 하나의 몸(一體)이라고 강조되고 개인의 자기다움을 주장하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였다. 여성은 더는 직계 가족을 위한 노동에 헌신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대했지만 그 대신 더 강하게 가족을 돌보는 정체성을 내면화했다. 그리고 직계(부계) 가족과 부부가족의 절충 속에서 성별 분업관계가 안정화되었다.

1920년에서 1940년대에 태어난 세대가 결혼하고 출산하여 가족을 이룬 시기는 1960년대 전후로 분포되었다. 결혼 이후의 가족관계에는 직계가족과 부부가족 이념이 갈등하고 절충되는 다양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노인 세대가 기억하는 부부관계는 남녀차별적이었고 생계와 가사 역할 사이 성별 분업관계가 안정되지 않았다. 반면 나고야 노인 세대는 성별 분업관계가 상당히 안정적이었다. 남성 생계부양과 여성 가정돌봄의 성별 분업에는 임금노동자 남성의 경제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노인 생애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의 자녀양육 태도에서는 유교적 가족이념과 일본의 이에 이념이 소자녀 양육관에 작용하고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특징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평균 초혼 연령을 보면 서울 노인의 경우 여성은 20세 전후, 남성은 24세 전후에 결혼했고 결혼연령의 편차는 크게 나타났다. 전쟁, 가난, 이주 등으로 삶이 안정되지 않아 결혼을 늦게 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나고야 응답자는 서울 노인에 비해 남녀 각각 4세 정도 결혼연령이 늦어 여성은 24세 전후, 남성은 28세 전후에 결혼한 것으로 집계된다. 표집자료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체 수준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은 당시 결혼연령이 상당히 표준화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일본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日本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11: 103), 일본 남녀 초혼연령은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1940년에서 1970년대까지 남성은 27세 전후로 안정화된 반면, 여성은 23세에서 25세로 증가한 패턴을 보인다.

결혼 형태는 중매로 결혼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지역별 차이도 유의하게 보인다. 서울 노인의 경우 중매혼이 일반적이었던 것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계층이 비슷한 집안끼리의 신분내혼의 영향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렇지만 당시 구질서가 상당히 해체되고 새로운 경제적 계층의 경계도 명확하지 않았고 삶의 조건도 불안했으므로 신분이나 계층내혼도 성사되기 어려웠을 수 있다. 오

히려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혼인이 성사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 같다. 가난과 전란 등으로 고향을 떠나 생활하던 중 가깝거나 먼 친인척이나 동네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기준은 출신 집안, 남성의 직업,¹ 집안일에 헌신적인 여성,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여성 등이 고려되었다.

서울 노인의 결혼 생활에서는 부부간 친밀성은 약했고 가장의 부양력도 취약했다고 구술한다. 여성노인에게 젊은 시절 부부관계는 한 번 시집가면 그 집의 귀신이 되어야 하고, 남편 없이도 시댁을 뒷바라지하고, 시집에서 구박당어리신세고 남편은 외도가 많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불호령이 떨어지고 대화가 통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황○○). 남편의 외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권위적인 태도 때문에 부부간에는 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 과거의 부부생활을 기억하면서 지○○ 씨와 원○○ 씨는 아내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한 데 회한이 많다고 했다.

임금노동자로서 남성의 경제적 부양력은 성별 분업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 한편 서울 남성 응답자와 여성 응답자의 남편은 대부분 안정된 노동경력을 갖지 못했다. 더욱이 조사 대상 노인은 한국 노인 일반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생애를 통해 이직, 전직, 실업 상태가 빈번했다. 그것은 한 곳에 오래 있을 수 있는 일자리가 부재했던 이유가 크다. 회사가 쉽게 망하고 돈벌이가 되지 않는 일거리가 대부분이었고 공공기관에 취업하더라도 박봉이어서 이직이 빈번했다. 취약한 산업구조에서 안정된 고용이 어려웠고 임금노동자를 포기하고 자영업으로 전직이 잦았다. 자영업 역시 경기가 좋지 않았거나 사기를 당해 접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 불안한 노동경력과 소득활동은 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의 삶이 취약했음을 드러낸다. 그리고 생계부양자의 경제적 취약함을 보완하는 데 혹은 부재한 남편을 대신하여 여성의 생계활동이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

나고야 노인은 연애로 결혼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서울 노인에 비해 많았다.²

¹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군인 출신 남편과 결혼한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전쟁에 참여한 세대라는 점과 군인에 대한 사회적인 대우가 좋았던 시대를 반영하는 것 같다.

² 2006년 동아시아 가족모듈사회조사(EASS)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결혼 형태를 비교해보면 중국 노인의 84.4%, 일본 노인의 67%, 한국 노인의 92.5%, 대만 노인의 86.1%가 중매로

그렇지만 자산이나 권력이 있는 집안에서는 중매를 통해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이 관행이었다. 좋은 집안과 사돈을 맺기 위해 딸을 가진 중산층 가정에서는 딸에게 전문고등학교와 학업 외 재봉과 원예, 요리 교양을 배우게 했다(노다, 요시다, 모리). 인터뷰에 참여한 요시다는 결혼하기 싫어 결혼 조건으로 부자동네에 살고, 대학에 다니고, 형제가 적은 남자를 주장했는데 남편이 그 조건을 모두 갖췄었다고 한다. 물론 좋은 결혼 조건에서는 여성이 며느리로서 해야 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나고야 응답자는 서울 노인에 비해 부부간의 친밀성을 더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것 같았다. 주로 1960년대 결혼한 나고야 응답자 여성들은 전업주부의 로망을 갖고 있었다. 그들의 어머니는 대부분 가업과 가계를 유지하는 데 헌신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응답자 세대는 여성의 아름다움, 돌봄의 가치, 정서적 친밀감에 대한 로망이 컸다. 그러나 남편의 직업에 따라 결혼 이후 생활이 크게 달라졌다고 한다. 남편이 직장인이면 부부중심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컸다. 고이즈미는 친척의 소개로 만난 남편이 대도시 대기업을 다니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가업을 이어받는 경우에도 처음에는 시부모의 배려로 따로 살다가 나중에 합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일본에서 1960년대 이후 부부중심 가족이 크게 확대된 데에는 샐러리맨의 등장이 중요한 조건이 된다. 임금노동의 기회가 확대되기 전 남자들은 가업이나 사업을 하는 다른 집에 가구원이 되어 봉사하다가 나중에 이에(家)를 계승하거나 새롭게 이에를 창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가업을 크게 하는 가구에서는 가족이 함께 가업에 종사하는 외에도 견습공(奉公)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많았다. 견습공과 가구주의 관계는 준 부모-자녀 관계의 성격이 있었다. 견습공이 가구주의 이에를 계승하는 경우도 있고 같은 성(氏)으로써 분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1960년대에는 대기업을 많아지면서 젊은 남성들이 가업이나 소규모 자영보다 대규모 조직생활을 선호하게 되었다고 한다. 인터뷰에 참여했던 미즈타니 씨는 고도성장기 남자의 생활은 매우 바빴다고 기억한다. 집은 잠만 자는 곳

결혼한 것으로 집계된다. 동아시아가족조사에 비추어보아도 20세기 초중반까지도 한국인의 결혼 형태가 다른 동아시아 나라보다 더 보수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표 5 조사 응답자의 결혼, 출산, 자녀 교육

	서울	나고야
결혼연령(평균, 세)		
여성 응답자	21.9	24.0
배우자	25.7	28.1
결혼 방식		
중매	65.0	50.0
연애	17.0	35.4
중매반 연애반	15.0	12.2
중매도 연애도 아님	1.0	1.2
불명/무응답	0.0	1.2
계	100.0(N=100)	100.0(N=82)
자녀 수(명)	3.0	2.1
첫째아 출산 연도	1961	1962
둘째아 출산 연도	1963	1965
셋째아 출산 연도	1964	1967
첫아이 출산 장소		
시가	5.0	3.7
친정	8.0	2.4
자신의 집	46.0	2.4
조산소	4.0	6.1
병원	33.0	79.3
기타	0.0	1.2
모름, 불명	8.0	4.9
계	100.0(N=100)	100.0(N=82)
막내아 출산 장소		
시가	1.0	4.9
친정	3.0	1.2
자신의 집	42.0	0.0
조산소	4.0	4.9
병원	36.0	69.5
기타	0.0	1.2
모름, 불명	14.0	18.3
계	100.0(N=100)	100.0(N=82)

표 5 조사 응답자의 결혼, 출산, 자녀 교육(계속)

	서울	나고야
아들의 교육 수준		
무학	4.8	3.5
초등	3.4	1.2
중학교	1.4	18.8
고등학교	17.1	1.2
전문대학	6.9	62.4
대학	54.1	11.8
대학원 이상	12.3	1.2
계	100.0 (N=146)	100.0 (N=85)
딸의 교육 수준		
무학	4.2	1.2
초등	6.3	1.2
중학교	4.9	21.4
고등학교	31.7	32.1
전문대학	2.8	36.9
대학	43.0	0
대학원 이상	7.0	7.1
계	100.0 (N=142)	100.0 (N=84)

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남성은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보냈다. 작업장은 단순히 노동을 하고 생계수단을 버는 공간이 아니라, 상사와 부하, 동료 간의 신뢰와 보살핌, 헌신, 우정을 나누는 인간관계의 중요한 터전이었다. 샐러리맨은 가업을 책임지고 지휘하는 권위는 갖지 못했지만 기업이라는 조직사회에서 장기적인 보살핌과 연대를 나눌 수 있었다. 이렇게 경제가 부흥하던 시기 샐러리맨과 가업을 계승한 이에맨은 전형적인 일본 남성의 삶을 상징했다.

자녀 수는 서울 응답자는 평균 3명, 나고야 응답자는 2명 수준으로 차이가 난다. 부모세대에 비해 응답자의 출산자녀 수가 많이 적다. 첫째아이의 출생연도는 1959년에서 1962년 사이에 집중되는데 196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는 가족계획을 실시했다. 1960년대 초반 가임여성의 합계출산율은 6명이 넘었지만, 당시에 이미 원하는 자녀를 낳은 기혼 여성을 중심으로 가족계획에 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다(조남훈, 1988). 일본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920년에서 1940년대는 4명에서 5명 사이로 높았고, 1950년대는 2명에서 3명 사이, 1960년

대에는 2명 수준으로, 1970년대 초반 이후 2명 이후로 떨어졌다(日本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11: 50). 한국의 응답자 중 일부는 많은 자녀를 출산하고 일부는 가족계획에 관심이 컸고, 나고야 응답자는 이미 소자녀 가족 이념을 실행했다고 보인다.

1960년대 당시 출산 장소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 1960년대 서울의 출산 장소는 가정과 병원이 병립되어 보이고, 나고야 노인의 출산 장소는 병원으로 그려진다. 서울 응답자는 의사와 산파의 도움을 받은 비율이 높은 외에도 시부모와 친정부모, 남편의 도움을 받아 분만했다. 나고야 응답자는 대부분 의사의 도움으로 분만했다. 자녀는 여성 응답자가 주로 돌봤지만 시부모가 도와준 경우도 적지 않아 부부중심과 직계가족 돌봄 네트워크가 겹친다. 양육은 여성 이외 다른 가족들이 맡기도 하지만, 가사는 전적으로 여성 응답자의 일이었다. 서울 노인은 가정부가 가사를 맡았다고 응답한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는 상류층 가족문화의 영향이기보다 1950년대에서 1970년대 많은 인구가 서울에 유입되었는데, 많은 여성 이주자와 경제 사정이 어려운 집의 딸이 남의 집에서 가정부를 한 경우가 적지 않았던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설문조사와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자녀(특히 아들) 교육에 대한 관심이 두 지역 노인에서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서울 노인은 본인의 교육 수준은 낮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교육 수준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인터뷰 내용에서도 자녀 교육에 헌신적이었고 없는 살림에서도 자녀들을 대학교육까지 시켰다는 데에 자부심이 컸다. 홍○○ 씨는 큰아들이 연세대, 둘째아들이 고려대를 들어갔을 때 너무 좋았다고 한다. 반면 나고야 노인은 상대적으로 자녀 수도 적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지만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은 서울 노인에 비해 높아 보이지 않았다. 교육 수준이 높은 응답자도 자식이 부모처럼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요네야마). 이러한 의식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한국은 일본에 비해 교육에 따른 지위 획득의 기회가 차별화된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유교문화의 영향에서 교육을 중시하는 정서가 컸고, 국가 발전 이데올로기와 가족계획운동을 통해 자녀 교육이 강조되었으며, 실제 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고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경제적 효용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가족의 전략에 따를 수 있다.

2) 부모세대와의 지원관계

이주, 경제발전, 가족이념의 복잡한 변화 속에서 부모세대와의 관계가 약해지는 모습과 변형 지속되는 모습이 두 사회 모두 관찰된다. 여성 응답자 중에서 결혼한 뒤 시부모와 동거한 경험이 나고야 응답자에서 높게 나타난다. 서울 여성 노인 중에는 시부모와 동거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시가친척과 함께 지낸 경험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원관계에서도 시부모와 시가친척을 도와준 경우가 많았다(표 6).

결혼 후 분가와 핵가족 형태가 일반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경우 다산소사 세대의 인구요인뿐만 아니라 빈번한 이주와 경제적 궁핍 때문에 부모와 자녀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된 이유도 컸던 것 같다. 또한 역으로 가난은 분가를 연기하게 한 조건이기도 했다. 오랫동안 직계가족에 봉사한 대가로 겨우 집과 땅을 구하여 분가한 사례도 있었다(황○○). 서울 노인은 세대관계가 직계만이 아니라 넓은 부계친척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이주가 활발했던 상황에서 부모와 떨어져 신가(新家)를 형성했지만 친족의 네트워크가 객지에서 새롭게 형성되었다. 홍○○ 씨는 시부모님이 시골에 계셔 같이 살지 않았지만 친척들이 돌아가며 집에 와 거의 같이 살다시피 했다고 기억한다. 남편이 친척이라면 별별 떨어졌다고 한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주로 떨어져 사는 가족들이 많았지만 친족공동체의 관계가 새로운 이주 공간에서도 작용하고 있었다.

나고야 여성 응답자 중에는 시부모와 동거한 경우도 적지 않지만, 어느 가족 주기에서도 시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부부중심 생활단위로 산 경우도 많았다. 당시 여성들은 이에(家) 가족보다 부부중심의 가족을 원했다고 한다. 이에 생활에서 요구되는 노동과 부모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이에를 잇는 경우도 처음부터 이에에 들어가 살기보다는 신혼 때는 따로 살다가 나중에 이에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자식들이 모두 샐러리맨이 되어서 가업을 잇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미즈타니). 그렇지만 응답자 노인이 고향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경우 다른 형제가 고향에 남아 부모의 집이나 가업을 잇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와타나베, 이케다, 요네야마, 고이즈미, 다카키), 선조에게 물려받은 자산과 집을 팔아버리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다카키). 이처럼 나고야 노인의 중장년기 세대관계는 인구·경제·관념적 조건이 결합되어 이에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부부중심 관계의 특징도 있었다.

세대관계는 부계와 아들 중심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부모와의 지원관계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강하게 인식하고, 모계보다 부계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서울 여성에서는 세대 간 지원관계를 약하게 인식하고, 남성에서는 본인 부모에게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을 주었던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서울 남성 응답자는 아들로서 특별하게 대우 받았고 부모를 모시고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강했다. 나고야 남성 노인도 부모에게서 경제적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보이지만, 서울 노인에 비해 그 정도가 작다. 또한 서울 남성 노인은 부부와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와 친족을 아우르는 가족의식을 갖고 있다면 나고야 남성 노인의 친족에 대한 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해 보인다.

나고야 응답자의 경우 인구·경제적인 조건 때문에 부모세대와 독립적으로 생활한 경우도 많지만 여성의 전업주부 역할에는 며느리의 역할과 돌봄이 포함 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고야 여성 응답자의 경우 대부분 부모와 동거 경험이 없고, 경제적으로 지원한 경험이 없었지만 부모님을 신체적으로 돌본 경험은 많았다. 고이즈미, 모리, 요시다 씨는 시부모를 간병하고 가족묘를 만들고 성묘를 하고 집에 불단을 관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는 야마토 레이코(大和礼子, 2008)가 지적하듯이 일본사회에서 여성의 정체성이 돌봄으로 강하게 동일시된 영향을 반영할 수 있다. 여성은 자녀를 돌보고 남편과 홀로 된 부모를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됨을 의미한다.

재산상속에서도 직계·부계적 가족 이념의 영향을 관찰할 수 있다. 서울 응답자의 부모는 직계와 장남 중심의 상속의식이 강하지만 상속할 재산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재산이 있는 경우는 장남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한된 재산을 분산하기보다 대를 이을 장남에게 집중해서 상속하는 것이 조선 후기에도 일반적이었다고 한다(최재석, 1996). 반면 나고야 응답자는 부모의 재산을 형제자매가 균등하게 상속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본에서도 장남이나 아들중심의 상속 관행이 일반적이었지만 딸에게도 일정부분 상속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재산상속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것이 1960년대에서 1980년대 한국에서는 장남중심과 직계가족 의식이 강했지만 자산을 물려줄 만한 경제

표 6 중장년기 부모와의 관계

	서울		나고야	
	도움을 줌	도움을 받음	도움을 줌	도움을 받음
동거 경험(여성 응답자 기준)				
부모	4.4		7.1	
시부모	26.1		40.5	
친척	7.3		0	
시가친척	17.4		4.8	
동거 경험 없음	55.1		54.8	
지원관계(응답자 기준, 복수응답)				
여성 응답자				
본인의 부모	11.6	13.0	9.5	28.6
배우자의 부모	15.9	7.3	23.8	21.4
본인의 친척	5.8	5.8	2.4	2.4
배우자의 친척	23.2	7.3	9.5	0
지원한 적이 없다	56.5	72.5	61.9	59.5
남성 응답자				
본인의 부모	45.2	12.9	22.5	10.0
배우자의 부모	12.9	0	7.5	10.0
본인의 친척	25.8	9.7	10	2.5
배우자의 친척	9.7	0	0	0
지원한 적이 없다	56.5	72.5	61.9	59.5
부모님의 재산상속				
장남단독	27.0		25.6	
장남우대	9.0		13.4	
형제자매 균분	3.0		13.4	
형제 균분	9.0		2.4	
재산 없음	38.0		17.1	
기타	14.0		28.0	
불명/무응답	0.0		0.0	
계	100.0(N=100)		100.0(N=82)	
부모님의 묘지, 제사관리				
장남	44.0		65.9	
장남 이외 형제	11.0		12.2	
장녀	4.0		6.1	
장녀 이외 자매	1.0		3.7	
형제자매 공동	7.0		0.0	
형제자매 이외	11.0		2.4	
관리하지 않음	15.0		0.0	
기타	7.0		9.8	
계	100.0(N=100)		100.0(N=82)	

적 조건이 취약했던 반면, 비슷한 시기 일본에서는 장남 중심과 직계가족의식은 한국보다 약했지만 가업이나 가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은 훨씬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 노인은 부모님의 제사관리자도 직계, 부계, 장남중심의 승계 경향이 강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제사를 지내고 묘지를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나고야에서는 가족의 종교에 따라 제사의례가 다르고 형제자매가 함께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고, 배우자 제사는 가족들과 따로 지내는 등 노인이 묘제와 제사를 관리하는 방식이 다양했다.

3. 노년의 가족관계: 더욱 더 변형된 직계·부계가족과 부부가족의 절충 논리와 탈가족화

노년기는 경제활동에서 물러나고 자녀들이 결혼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꾸려나가고, 그동안의 삶의 의미를 통합하는 시기다. 또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노후 부양에 있어 가족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인식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데 노년의 시기는 길어졌고 노년의 삶은 다양해지고 사회조직 원리도 크게 변화했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까지 지속된 경제호황의 거품이 정점에 달하고 1990년대 이후부터 장기간 경기침체에 휩싸였다. 일본식 경제로 자부했던 장기고용의 신화가 무너지고 고용불안이 심화되었다. 장기간 경기침체 원인으로 인구요인이 크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1990년대 이후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졌다. 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진 1974년 이후부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1989년 합계출산율이 1.56으로 떨어진 것을 쇼크라고 인지했지만 이후에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다. 인구성장률은 계속 감소하여 2006년 이후에는 인구가 급기야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는 미혼인구의 증가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1970년대까지 안정적인 결혼연령은 이후 계속 늦어져, 1980년 이후부터는 출산율 감소의 제일 요인이 되었다(日本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11).

한국사회에서는 경제와 인구구조의 변화가 훨씬 더 극적으로 전개되었다. 한국사회의 압축적인 경제성장은 성공, 발전, 지위이동에 대한 강렬한 욕망으로

추진되었다. 발전에 대한 집합적 욕구가 강하게 분출되었던 첫 번째 세대가 응답자 세대일 수 있다. 나고야 응답자가 부모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던 것과는 반대로 서울 노인이 기억하는 부모는 가난하고 한이 많은 방황하는 존재였다. 아버지는 권위적이면서도 가족을 꾸려나갈 능력이 없었고,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억척스럽게 살아야 했던 무지하고 한 많은 존재였다. 응답자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가난과 허약한 존재감을 자녀세대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자녀 교육에 매진했다. 고도성장의 혜택은 응답자 노인세대보다 자녀세대에서 결실을 얻었다고 인식한다. 자녀세대는 고도성장과 민주화의 분위기에서 성공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존재감을 가졌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고용구조가 크게 유연해지고 고용지위도 불안해졌다. 생존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는 불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 불안한 삶을 반영하듯 미혼인구와 혼자 사는 노인이 급증하고 있다.

두 사회 모두 2007년과 2010년 인구통계에 따르면 노인의 가구 형태는 1세대 형태가 일반적이다.³ 두 지역 중에서 나고야가 속한 아이치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1세대 가구 비율이 더 높으며,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서울에서 높게 분포된다(표 7). 서울에서 자녀와의 동거율이 높은 것은 집값과 만혼화의 영향이 클 수 있다. 또한 홀로 사는 노인이 급격히 늘어난 데는 자녀와의 동거율이 떨어진 이유뿐만 아니라 재혼하거나 파트너와 함께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녀와의 관계는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는 의식이 강하며 자녀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관계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고 노인과 자녀 세대 모두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것 같다(박○○, 지○○).

서울 노인의 소득원은 매우 다양하다. 자신과 배우자의 사업, 근로소득, 연금, 자녀의 도움, 집세 혹은 생활보호지원 등 다양한 소득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세대 간에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도 강하다. 반면

³ 여기에서는 공식적 국가 통계를 통해 65세 이상 인구의 거주 형태를 비교해보았다. 서울은 2010년 총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분포도를 구했고, 나고야가 속한 아이치는 2007년도 일본 정부 통계에 기초하여 분포도를 구했다. 일본 통계에서는 단독세대, 부부만으로 구성된 세대, 자녀와 동거, 기타 친족과 동거, 비친족과 동거로 구분했는데, 세대로 전환할 때 부부만으로 구성된 세대는 1세대로, 자녀 혹은 기타 친족과 동거는 2세대 이상으로, 단독세대는 1인 가구로 대응시켰다.

나고야 노인은 자녀와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며 자녀에게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 노인 응답자가 자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은 경우가 많은 것은 가족 부양을 강조하는 효의식의 영향,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태도, 노후의 독립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운 것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 도와줄 사람으로 아들을 먼저 고려하고 있지만 딸에게 의존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또한 서울 남성 노인 중에서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도 꽤 높다. 나고야 남성 응답자는 아들보다 딸을 지적하는 비율이 더 높다.

노후생활의 단위는 부부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집안에서 기본적인 요리, 세탁, 청소 등의 가사는 여성 응답자가 하고 있다. 혼자 사는 서울 응답자의 경우 딸에게서 생활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부부관계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인식하는 노인도 있지만, 노년에 남자가 힘이 없어지자 대우가 달라진다고 인식하는 이도 있다. 남성 응답자는 소원했던 부부관계에 더 신경을 쓰고 가정의 일도 도와주고, 아픈 아내를 돌보기도 하면서 원만한 부부관계를 위해 노력하지만 살아오면서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나고야 응답자는 부부단위 생활이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이며 노년에도 성별 역할 분업이 뚜렷해 가사와 돌봄과 관련해서 여성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병이 나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 때 자신을 보살펴줄 사람으로 서울 응답자의 경우 배우자를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아들, 딸, 며느리를 꼽았다. 나고야 남성 응답자는 배우자와 딸을 지적한 비율이 높았다. 한국의 응답자는 간병이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이 강하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아들이라고 해도 아들의 배우자인 며느리가 맡는 것이었는데 며느리의 희생을 쉽게 간과하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점차 자녀보다 배우자에게 의존하는 것을 덜 부담스럽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간병과 관련하여 한국 노인에서는 성별 분업 의식과 직계·부계의식이 혼재되어 있고, 일본 노인에서는 성별 분업 의식이 강하게 보인다.

서울 남성 노인은 고민상담자로 배우자, 아들, 딸, 며느리, 친구, 사위, 형제자매 순을 든다. 또한 서울 남성 노인 중 고민을 상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응

답한 비율도 꽤 높다. 나고야 남성 노인은 배우자, 딸, 아들, 사위, 형제자매 순으로 고민상담자를 찾고 있다. 서울 여성 노인은 아들과 딸에게 우선 고민을 상담하며 배우자보다 친구에게 고민을 상담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고민을 상담해줄 사람이 없다는 비중도 10%가 넘는다. 나고야 여성 노인도 배우자에게 상담하는 비중보다 친구에게 상담하는 비중이 더 높다.

응답자가 중장년기일 때 노부모의 재산은 장남에게 상속되는 게 지배적이었다. 또한 서울 응답자의 경우 부모에게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한편 응답자 세대로부터 자녀세대가 독립, 계승하는 방식을 보면 장남중심이나 아들중심의 증여, 상속은 약화되었고, 자녀에게 균등하게 증여, 상속하는 경향이 크게 증가했다. 장남을 중심으로 대를 잇고 부양을 기대하는 경향은 크게 약화되었다. 또한 응답자 세대에서도 증여나 상속할 재산이 없다는 비율도 꽤 높았다. 한국 노인 중에는 평생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없이 노년에 이른 응답자도 많았다. 나고야 응답자 중에는 기타에 응답한 비율도 꽤 높았는데, 세대 간 독립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분위기에서 자녀가 아닌 배우자 우선의 증여나 상속 의식도 있었고, 부모를 부양하는 의미보다는 자녀들이 독립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데 보탬이 되는 의미가 강조되는 것 같다. 그래서 잘사는 자녀보다 생활이 어려운 자녀를 우선으로 증여나 상속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사와 묘지 관리는 직계가족의 중요한 일이었다. 표 7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서울지역에서는 제사나 묘지 관리에 있어서는 장남 중심의 관행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다. 기대는 이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자녀가 협조해도 제사와 묘지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서울 노인에서는 제사도 묘지 관리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꽤 많았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 같다. 반면 나고야 응답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사와 묘지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심리가 있다. 세대 간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도 세대를 통해 부모와 조상이 기억되기를 바라고 세대 간 친밀성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다.

표 7 노년의 생활과 지원관계

	서울	나고야
현재 거주 형태		
혼자 삶	32.0	20.7
배우자와	31.0	51.2
자녀와	19.0	8.5
배우자+자녀	17.0	19.5
기타	1.0	0
계	100.0(N=100)	100.0(N=82)
현재 거주 형태*		
1세대	30.18	37.3
2세대 이상	54.3	47.9
1인가구	15.1	14.6
비친족가구	0.6	0.2
계	100.0(N=100)	100.0(N=82)
기혼자녀와 동거 경험		
동거 경험 없음	49.0	68.3
현재 동거	18.0	13.4
동거 경험 있음	25.0	9.8
자녀 없음	4.0	6.1
불명	4.0	2.4
계	100.0(N=100)	100.0(N=82)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31.0	87.8
현재 도움을 받고 있다	60.0	8.5
이전에 받은 적이 있다	5.0	1.0
불명	4.0	2.4
계	100.0(N=100)	100.0(N=82)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		
도움을 준 적이 없다	33.0	46.3
현재 도움을 주고 있다	12.0	19.5
이전에 준 적이 있다	50.0	31.7
불명	4.0	2.4
계	100.0(N=100)	100.0(N=82)

표 7 노년의 생활과 지원관계(계속)

	서울		나고야	
	남성 응답자	여성 응답자	남성 응답자	여성 응답자
주된 소득원				
본인 수입	7.0		3.8	
배우자 수입	6.0		1.3	
본인연금	7.0		60.8	
배우자연금	7.0		29.1	
동거 아들	7.0		0	
별거 아들	16.0		0	
동거 딸	3.0		0	
별거 딸	7.0		0	
집세	14.0		5.1	
생활보호	11.0		0	
기타	15.0		0	
계	100.0(N=100)		100.0(N=82)	
간병 기대자	남성 응답자	여성 응답자	남성 응답자	여성 응답자
배우자	80.7	26.1	80.0	38.1
아들	70.9	60.9	30.0	14.3
딸	51.6	47.8	57.5	35.7
머느리	51.6	33.3	12.5	26.2
사위	12.9	10.1	15.0	4.8
손자손녀	9.7	11.6	12.5	4.8
형제자매	6.5	15.9	7.5	14.3
친구	6.5	23.2	5.0	9.5
복지단체	3.2	24.6	2.5	0.0
아무도 없다	3.2	-	0.0	-
고민상담자	남성 응답자	여성 응답자	남성 응답자	여성 응답자
배우자	58.1	17.4	70.0	28.6
아들	58.1	31.9	25.0	26.2
딸	35.5	39.1	35.0	21.4
머느리	32.3	18.8	2.5	14.3
사위	9.7	5.8	10.0	4.8
형제자매	6.5	18.8	12.5	19.1
이웃사람	0.0	5.8	2.5	7.1
친구	19.4	44.9	7.5	33.3
아무도 없다	25.0	15.0	0.0	4.0

표 7 노년의 생활과 지원관계(계속)

	서울	나고야
상속자녀		
장남 단독 상속	11.0	9.9
장남 우대 상속	12.0	7.4
자녀 전원 균등 상속	26.0	39.5
아들 균등 상속	5.0	0
재산이 없다	26.0	13.6
기타	15.0	28.4
불명	5.0	1.2
계	100.0(N=100)	100.0(N=82)
본인의 제사, 장묘의 관리		
장남	41.0	41.5
장남 이외의 아들	3.0	3.7
장녀	6.0	19.5
장녀 이외의 딸들	0	2.4
형제들이 협력	7.0	8.5
형제 이외	0	0
제사, 묘지 관리하지 않는다	31.0	6.1
기타	8.0	15.9
불명	4.0	2.4
계	100.0(N=100)	100.0(N=82)

*공식적인 국가 통계에서 집계된 65세 이상 인구의 거주 형태를 나타냄. 서울은 2010년 총조사 자료에 기초해 분포도를 구했고, 나고야가 속한 아이치는 2007년도 일본 정부 통계에 기초해 분포도를 구함.

V. 토론: 근대가족의 형성과 종언에의 함의

가족관계는 생애 과정의 사회적·상징적 질서체계일 수 있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고 쇠퇴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과 자아 발달의 과제를 미시적으로 제도화한 것이 가족관계이고 가족이념이다. 서울과 나고야 노인의 생애 과정에서 구성된 가족관계는 근대가족의 형성, 발전, 긴장의 형상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생애 전체를 통해 직계·부계가족과 부부가족의 절충 양상을 확인할 수 있고 두 지역의 차이도 두드러진다.

서울 노인 응답자가 태어나고 어릴 때 경험했던 가족관계는 가부장 중심의

권위적인 관계지만 직계·부계가정의 물질적인 기반은 매우 취약했다. 장남 우선, 아들중심의 가족승계의 가치를 중시했지만 정작 자산을 물려줄 만한 경제적 기반을 갖춘 가정은 흔하지 않았다. 가부장은 상징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생산 활동에서는 부재했고, 가부장을 대신해 어머니가 가족의 생계를 맡았던 것도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어머니는 시부모 부양과 남편 수발, 자녀 양육, 생계를 모두 책임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응답자가 어릴 때 부모에게서 지극한 정서적 돌봄을 받았던 기억은 일반적이지 않았으며 장남과 아들에 대한 편애가 컸다. 이처럼 생애 초반에는 직계·부계 가족이념과 경제적 기반 사이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 직계·부계 가족관계가 변형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청년기와 중장년기는 직계·부계가족과 부부가족의 절충논리가 좀 더 명확하게 작용하고 있다. 조사대상 남성은 그들의 아버지 못지않게 권위적인 가부장으로 살아왔다. 친밀성은 부부관계에 제대로 포섭되지 않았다. 성별 분업의 기초는 생애 중반까지 안정되지 못했다. 오히려 권위적인 가부장과 실질적인 생계부양자인 아내와 어머니 관계가 일반적이었다. 직계·부계가족과 부부가족의 절충 속에서 자녀의 가치가 강화되는 모습이 그려진다. 자신 세대의 가난과 낙약함을 자식세대에 물려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해, 가족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 자녀 교육과 성공에 헌신적이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는 직계·부계가족의 가문 의식, 존재를 무시당한 한과 인정 욕구, 소가족이념, 발전과 지위 이동의 열망이 결합되어 강화되었다.

노년에는 민주화와 고도성장, 점차 심화되는 경쟁과 경제적 불평등, 저출산과 만혼화라는 압축적인 경제·인구 구조 변화 조건에서 직계·부계가족과 부부가족관계의 보다 혼돈스런 절충과 탈주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직계·부계 가족이념을 중심으로 구축된 절충적인 가족관계의 긴장이 커지고 자녀 중심의 가족관계도 긴장하고 변형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부부간에 더 의지해서 살아야 하지만 오랜 동안 소통이 어려웠던 부부관계가 변하기 어렵고 자녀중심으로 살았던 정체성에서 자유롭지 못해 갈등한다. 불안하고 외로운 노후가 보편화되는 맥락이 여기에 있다.

나고야 노인의 생애는 직계·부계가족인 이에(家) 이념과 부부가족 이념이 절충된 가족관계에서 구성되었다. 제국주의와 군국주의 문화 속에서 강화된 젠더

정체성은 국가와 혼연일체가 되는 가부장과 그에 헌신하는 현모양처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했다. 나고야 노인은 유소년기 근대적 교육과 이에 이념과 군국주의의 가치를 내면화하면서 성장했다. 여성은 공손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관습이 지속되고 전업주부가 될 여성은 결혼 전에는 순수하고, 청순하고, 귀여운 아이와 같은 정신을 갖고 결혼 후에는 가정과 아이를 돌보는 존재로 사회화되었다.

고도성장기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고야 노인의 가족관계는 좀 더 안정적으로 직계·부계가족과 부부가족의 이념을 절충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임금노동자의 안정적인 생계부양력과 다산소사 세대의 인구 특성의 영향 속에서 많은 사람이 부부중심 가족관계를 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가족이념에는 가업의 중요성, 가족성원의 일체 의식, 이에의 계승 의식이 여전히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지금의 일본 노인세대야말로 일본식의 안정화된 성별 분업관계에서 경제활동과 가족생활을 유지해온 세대다. 일본의 경제성장이 존재감의 뿌리가 되어 남성은 이에멘과 샐러리맨으로, 여성은 자녀양육과 부모 돌봄을 전담하는 주부로 살아왔다. 여성노인은 그들의 어머니 세대와 다르게 힘든 노동에서 자유로웠지만 가족에 더 강하게 귀속된 삶을 살았다. 이에 관점에서 자식을 바라봤던 부모세대와 다르게 나고야 여성 노인은 자식에 대한 정서적 관계를 중시했다.

나고야 노인은 서울 노인에 비해 안정적인 성별 분업관계에서 살아왔지만, 역시 노년에 적지 않은 가족 변화를 경험하고 인지하고 있다. 자녀가 적는데 모두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나고 다른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가지면서, 가족을 계승하거나 조상을 기억하는 의미가 약화되고 있는 데 낙심한다.

이렇게 직계·부계가족과 부부가족의 절충과 혼용은 노인세대의 집합적인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직계·부계가족과 부부가족 이념이 절충되고 혼용된 것은 오래된 가부장제의 정치·경제적 조건과 젠더관계의 잔재가 근대화 과정에서 지속된 영향 때문이 아니라 제국주의, 식민지, 냉전체제에서 국가권력을 정당화하고 통치단위로서 가족을 포섭하고 사회 전반에 권위주의적 지배를 강화했던 근대사회의 가부장적 구성이 중요한 맥락이 되고 있다. 두 사회의 근대적 사회 구성의 또 다른 힘인 발전주의도 가부장적 이념과 갈등하고 타협하면서 부계가족과 부부가족의 절충 양상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한국에서 직계·부계가족과

부부가족 이념이 절충되고 변화된 모습은 세대와 젠더 간 다양한 타협과 갈등의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일본에서는 훨씬 타협적인 관계로 절충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 제국주의 통치와 경제부강, 그리고 가부장의 조직문화가 견고하던 조건에서 가족 내 가부장의 권위에 대한 저항은 제약되었을 수 있다. 이렇게 정치적 권위주의와 경제적 발전주의 이념으로 구성된 사회조직과 직계·부계가족과 부부가족 이념이 절충된 성별 분업관계는 거시-미시 사회 수준에서 조응하고 있다.

그런데 두 사회 모두 절충적인 직계·부계가족과 부부가족의 논리가 1990년대 후반 이후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다. 이른바 근대가족으로부터 탈주하는 현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중심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이들의 증가는 생애 초반부터 개인의 자율성이나 개인화를 내면화한 새로운 문화세대에 의해 주도된 현상이거나 경제적 불안과 불평등으로 나타난 경제 현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물론 이들 조건도 탈가족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는 탈가족화는 가부장적인 직계·부부가족과 그에 기초한 사회구성의 총체가 깨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근대가족의 형성과 종언은 직계·부계가족에서 핵가족, 그리고 개인화로 이행하는 단선적 변화로 이해하기 어렵다. 근대가족의 형상이 가장 완전해진 순간에 이르기까지 가족의 모습은 직계·부계가족과 부부가족의 절충된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정점의 순간에 탈가족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요컨대 절충적 직계·부부가족이 기대했던 남성의 생계부양력이 위태로워지고, 독립의 욕구보다 출세와 물질적 성공욕이 더 빨리 질주하는 집합적인 심리에서, 성별 분업의 보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기대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조건 사이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근대가족에서의 탈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박경숙·김영혜, 2005; 박경숙 외, 2005). 기존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남성들의 위기의식이 커지고,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한 남성들의 집단적 혐오와 그 혐오에 대한 여성들의 혐오가 온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것도 근대적 실재로 구성된 성별 역할의 로망과 현실 사이에 인지부조화가 심화된 현상일 수 있다. 이렇게 사회 심층의 가부장적 권력이 자기를 계속 확장하고 재생산하려 할수록 인지부조화가 커지고 미시적 삶과 사회구조 원리의 부조화가 심해지고 많은 개인

은 가족을 위해 살아가기 힘들다는 낙망과 좌절 속에서 근대가족 밖으로 탈주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 사회에서 근대가족의 형성과 종언은 한 세대가 다른 세대로 대체되는 과정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크지만, 한 세대 내에서도 생애 단계를 통해 변화의 마디들을 읽어볼 수 있었다. 1920년에서 1940년대 태어난 한국과 일본의 노인세대의 생애에서 구성된 근대가족이 가족응집성, 성별 분업, 직계가족이념, 자녀중심 이념들로 절충되어 형상화되었듯이, 이후 세대가 구성해가는 가족의 형상도 이러한 혼종된 가족 관념의 잠재적 영향에서 독특하게 진화되고 탈주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양적조사와 질적조사 방법을 결합하여 노인의 생애사를 재구성하고 근대가족의 형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 한 것이다. 아쉽게도 연구자가 인터뷰를 수행한 방식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익숙한 것을 잘 안다고 착각하여 서울 노인의 구술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의 복잡하고 심층적인 시대적·사회적 맥락에 주의하지 않았다. 사례마다 충분히 의미를 정리하는 시간을 놓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반면 나고야 노인의 생애는 연구자에게 익숙하지 않아 의미를 파악하려고 더 많은 주의를 하여 인터뷰를 했고, 미시사와 거시사의 관계의 의미를 좀 더 충실하게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여러 가지 착오와 제약으로 결국 이 논문은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인터뷰 내용을 보완하면서 가족 변화의 자취를 정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노인 생애사와 가족 변화, 사회 변화의 관계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기약한다.

투고일: 2016년 12월 7일 | 심사일: 2016년 12월 28일 | 게재확정일: 2017년 1월 22일

참고문헌

- 김수진. 2009. 『신여성, 근대의 과잉, 식민지 조선의 신여성 담론과 여성정치, 1920~1934』. 소명출판.
- 김용섭. 1958. “양안연구(상): 조선후기의 농가경제.” 『사학연구』 2, 1-49.
- 김용섭. 1960. “양안연구(하): 조선후기의 농가경제.” 『사학연구』 7, 1-49.

- 김용섭. 1963. “조선후기에 있어서의 신분제의 동요와 농지점유: 상주양안연구의 일단.” 『사학연구』 15, 1-50.
- 김혜경. 2009. “박정희 체제하 ‘핵가족’담론의 변화과정과 이원구조 연구: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82, 169-212.
- 김혜경. 2013. “부계가족의 실패?” 『한국사회학』 47(92), 101-141.
- 김혜경·정진성. 2001. “핵가족논의와 식민지적 근대성: 식민지시기 새로운 가족개념의 도입과 변형.” 『한국사회학』 35(4), 213-244.
- 남춘호·남궁명희. 2012. “생애과정의 탈표준화 경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 『지역사회학』 20(2), 91-128.
- 미야즈마 히로시. 노영구 옮김. 1996. 『양반: 역사적 실체를 찾아서』. 강.
- 박경숙. 2003. “세대관계의 다양성과 구조.” 『한국사회학』 37(2), 61-94.
- 박경숙·김영혜. 2005. “생애를 통해서 본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역할의 의미.” 『경제와 사회』 68, 133-160.
- 박경숙·김영혜·김현숙. 2005. “남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 요인: 계층혼, 성역할분리규범, 경제조정의 우발적 결합.” 『한국인구학』 28(2), 33-62.
- 박경숙. 2009. “식민지 시기(1910~1945년) 조선의 인구동태와 구조.” 『한국인구학』 32(2), 29-58.
- 박재홍. 2005. 『한국의 세대문제: 차이와 갈등을 넘어서』. 나남.
- 양현아. 2011. 『한국 가족법 읽기』. 창비.
-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1990. 『한국가족론』. 까치.
- 왕혜숙. 2013. “동아시아 가족의 다양성: 한국과 대만의 가족제도와 규범 비교 연구.” 『동양사회사상』 27, 351-398.
- 윤종주. 1991. “해방 후의 인구이동과 도시화.” 『한국의 사회와 문화』 15, 1-67.
- 이광규. 1996.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일지사.
- 이동진. 2002. “가족이동과 가족중첩.” 김경동 교수 정년기념논총. 『진단과 대응의 사회학』. 박영사.
- 이재경. 2003. 『가족의 이름으로』. 또하나의문화.
- 이효재. 1990. “한국 가부장제의 확립과 변형.”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론』. 까치.
- 일본법사회학회. 1989. 『가족제도의 연구』. 일본법사회학회.
- 장경섭. 2009. 『가족, 생애, 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창비.
- 전상진. 2005. “한국 세대사회학의 현주소: 한국의 세대문제, 차이와 갈등을 넘어서.” 『한

- 국사학회』 39(3), 215-256.
- 조남훈. 1988. “출산조절정책의 현황과 전망.” 『한국인구학』 11(1), 14-31.
- 조한혜정. 1985.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족주의.” 『한국문화인류학』 17, 81-98.
- 최재석. 1996.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일지사.
- 한남제. 1997. 『한국가족제도의 변화』. 일지사.
- 한경혜 · 김상욱. 2010. “세대간 지원교환 설명요인에 있어서의 부계와 모계의 비교.” 『한국사학회학』 44(4), 1-31.
- 호적대장연구팀. 2003. 『단성 호적대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川島武宣. 1950. 『日本社會の家族的構成』. 日本評論社版.
- 田間泰子. 2014. “産む・産まない・産めないと日本の戦後-女たちの人生.” 小浜正子 · 松岡悦子 編. 『アジアの出産と家族計劃』. 勉誠出版.
- 森岡清美. 2005. 『発展する家族社会学』. 有斐閣.
- 森岡清美. 1998. 『現代家族變動論』. ミネルヴァ書房.
- 安藤喜大美. 2013. 『現代家族における墓制と葬送』. 學術出版会.
- 山根眞理 · 洪上旭 · 朴京淑 · 李東輝 · 長坂格 · 中筋由紀子. 2014. “20世紀アジアの社会變動と産育のネットワーク: 5地域ライフコース調査.” 『愛知教育大學研究報告』 63, 155-166.
- 大和礼子. 2008. 『生涯ケアラの誕生』. 學文社.
- 小熊英二. 1998. 『日本人の境界』. 新曜社.
- 落合恵美子. 1994. 『21世紀家族へ』. 有斐閣.
- 上野千鶴子. 1990. 『家父長制と資本制』. 岩波書店.
- 今田繪里香. 2007. 『少女の社會史』. 勁草書房.
- 日本法社會學會 編. 1956. 『家族制度の研究』. 有斐閣.
- 日本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11. 『人口の動向: 日本と世界』. 厚生統計協會.
- 土田英雄. 1980. “隱居慣行と老親扶養慣行.” 『大阪教育大學紀要』 28, 51-66.
- 費孝通. 1998. 『郷土中國 生育制度』. 北京大學出版社.
- Kwon, Tai-Hwan. 1977. *Demography of Korea: Population Change and Its Components 1925-66*.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Abstract

The Life History of the Elderly and Familial Changes in Seoul and Nagoya: Traces of Formation and Demise of the Modern Family Embedded in Life Histories

Keong-Suk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familial changes and modernity embedded in the life history of the Korean and Japanese elders born between 1920s and 1940s. The elderly born between these periods experienced very rapid social change such as imperialism, political turmoil after liberation, ferocious nation building, wars, diaspora, and rapid economic development. Modern families have developed and transformed in such a vortex of social change.

Surveys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from 2009 to 2001 in Seoul, Korea, and Nagoya, Japan. Several important conceptual changes in the modern family were extracted from the life histories of the Korean and Japanese elders. A mixture of kinship care and modern institutional care, gendered education during childhood, relation with extended and conjugal families, ideas of gender role division, attitudes about inheritance, and family support during adulthood and later life were examined and compared.

The survey results combined with interviewees' recalled memories of family relations highlight the eclectic formation of patriarchal and conjugal families. The ideas of gender role division, attitudes toward child rearing, old age support, and family succession had changed through the course of their lives. Nevertheless, patriarchal and conjugal family relations had been

enacted and has led to the formation of an overarching ideology of family centeredness within the distinct relations and conflicts between gender and generations, between the authoritarian regime and the resistance of the citizens, and in the collective anxiety about economic developments.

This study also emphasized that the eclectic formation of patriarchal and conjugal families has been an important mechanism of de-familial phenomenon in present Japan and Korea. Despite romantic notions about family life and persistent patriarchal influence in social relations and institutions, strict definition of family roles, the increasing gap between expectations about family and real conditions, and the exacerbating conflicts in gender identities suggest that the dominance of the eclectic extension of patriarchal and conjugal families have come to an end.

Keywords | The modern family, patriarchal families, gender role divisions, life history, the elderly

